

다시 보는 '십계' - 연작 "데칼로그 I"

# DEKALOG I

트러스트 현대무용단(TDC)

생명은 모이고 흩어지며 관계 짓고 끊으며 이루어지고  
자유를 위한 생명은 고귀하고  
관계는 마치 호흡과 같아 삶의 인과를 남기고  
생명을 위한 자유는 무익하다  
단절은 숨없음과 같이 태초로 돌아가  
새로운 잉태로 이어지니 회복될 것이 있음이라

[ Note ]

The Greek word Dekalog means the Ten Commandments, which came from Moses before he led the exodus from Egypt in about 13 B.C. Moses went to the top of Mount Sinai and received the commandments directly from God. This art form deals with the sixth commandment, which states that "thou shalt not kill thy neighbor." Besides the conventional definition of murder, soldiers who take part in war or others who support the death penalty are violating the commandment. There have been a lot of murders since ancient times. There are two kinds of murder: those sanctioned by the commandments and unsanctioned and violent murders.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 could be easily distorted for individual or group benefit.

Freedom is based on life. We can be free because we have life. You cannot have freedom at the risk of your life. Freedom without life does has no meaning. The first death is traced back to the Garden of Eden. It was Adam and Eve who ate the forbidden fruit and thereby lost their connection with God. As a human being, being disconnected from God is associated with death. Adam and Eve tried to have freedom at the risk of life. Adam and Eve lost their lives when they left Eden that way. This is the essence of God's commandment. The existence of murder means a disconnection from God, from society and from nature. In the contemporary sense, this kind of alienation leads to murder. Among the Ten Commandments, the one forbidding killing refers to a physical act as well as a deterioration of the soul.

For my freedom, don't I have to kill my existence?

For my freedom, don't I have to kill another life?

The essence of God's commandment is now more relevant than ever.

그리스어인 “데칼로그(Dekalog)”는 열 가지 말씀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십계명은 대략 기원전 13세기 초 반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신에게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살인하지 말라.** 이는 그 뜻 그대로 이해하면 자신을 포함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말이다. 범법자의 살인은 두더라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나 혹은 법적살인 행위인 사형을 집행하는 법집행자의 입장만 들더라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살인이 있어왔다.** 이 살인에는 계명의 신과 관련하여 “승인 받은 살인”과 “승인 받지 못한 폭력적인 살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이나 집단적 이해에 의해 왜곡되어지기 쉽다. 신이 준 부정적 살인의 의미는 바로 위의 “(신으로 부터)승인 받지 못한 의도적 살인”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는 생명이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음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생명을 담보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생명 없는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죽음은 바로 에덴동산에서 비롯되었다.**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신과 단절되어버린 아담과 이브가 바로 첫 희생자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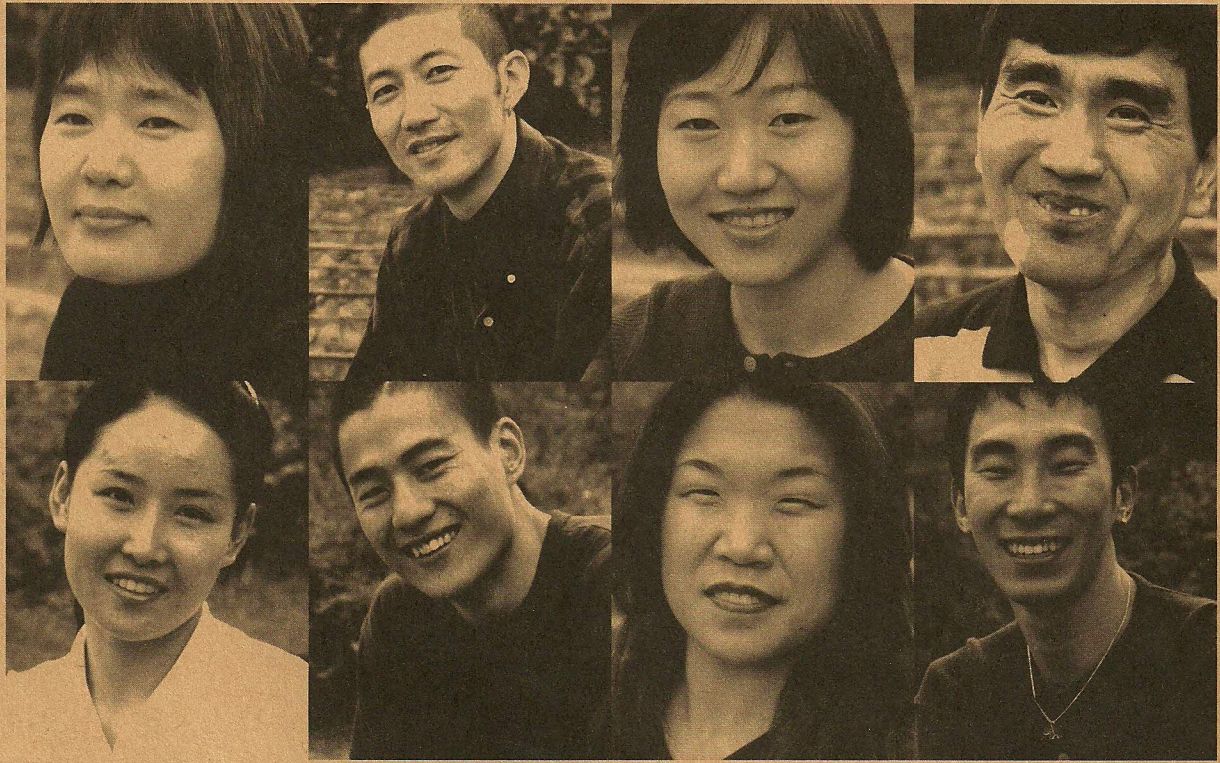
**인간이 신과 단절됨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는 생명을 담보로 자유를 얻으려 한 것이다. 그렇게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을 떠날 때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존재론적 살인…….**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신의 계명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 의미이다. 존재론적 살인은 신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현대는 이러한 단절 속에 무수한 살인을 양산해 내고 있다. 열 가지 계명의 중심에 세운 그 “살인금지”의 본질적 의미는 육체의 의미를 넘어 영혼의 문제에까지 닿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위해 팔아버린 생명으로 인해 곧 신, 사회, 자연으로 단절되고 소외되어 버렸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승인 받지 못한 폭력적 살인”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유를 위해 나의 존재(생명)를 죽이지 않는가?**

**나의 자유를 위해 나 이외 존재(생명)를 죽이지 않는가?**

오래전 신이 “살인하지 말라” 돌에 새겨준 그 의미가 오늘날 더욱 선명해 지고 있다.



김형희  
김진숙

김윤규  
김정웅

정경화  
제니(경자라)

최종천  
최진한

